· 2024 경기도교육청 학습동아리 ·

신규에게 알려주고 싶은 공직가치

· 헌 규 가 신 규 에 게 ·

헌
신

· CONTENTS ·

다양성

내 다리는 한계가 없다 (박찬종 / 현대지성) _ 3

청렴성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 (김영란, 이범준 / 도서출판 풀빛) _ 11

투명성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김태일 / 웅진지식하우스) _ 18

애국심

하얼빈 (김훈 / 문학동네) _ 25

전문성

AI 2024 트렌드&활용백과 (김덕진 / 스마트북스) _ 32

만든 사람들

강은별 · 이유경 · 김병곤 · 김호준 · 이아렴 · 이한새 · 임주현 · 최원일 · 한선주 · 홍희은

다양성



내 다리는 한계가 없다

박찬종 / 현대지성

*** * * 책 소개 * * ***

<다시 걷게 되던 날>이라는 단 하나의 영상으로 220만 조회 수를 기록한 다리절단 사고를 겪은 유튜버 CJPARK에 관한 이야기다. 저자는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자전거로 출퇴근하던 중 5톤 트럭에 깔리는 끔찍한 사고를 당해 왼쪽 다리를 잃는다. 놀랍게도 사고 일주일 만에 "저는 괜찮습니다"로 시작하는 글을 SNS에 올려 화제가 되었고, 112일 만에 의족을 차고 다시 걷는 모습을 영상으로 올려 수많은 이들에게 그의 놀라운 멘탈과 회복탄력성을 보여주었다. 심지어 병상에서 장애인 사이클 선수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다음 해에 참가한 전국체전에서 4개의 은메달까지 따낸다. 그리고 이제는 패럴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도전하고 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멘탈이 무너져서 일상으로 돌아오기도 쉽지 않았을 짧은 기간인데, 장애를 수용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것에 도전해 성과까지 낸 것이다. 게다가 자신의 달라진 일상을 대하는 유머러스한 태도 또한 놀랍다.

저자는 말한다. 어제의 고통과 우울로 오늘을 망치지 말자고. 자신이 겪은 '환상통'처럼 기억 속에만 있는 고통 때문에 오늘을 불행하게 살지 말자고. 저자가 그런 것처럼, 어제의 고통과 현명하게 작별할 때 우리는 인생을 한계 없이 굴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출처: 알라딘 인터넷서점(www.aladin.co.kr.)

01
다양성이란?

보편적인 의미

글로벌 시대의 다양한 생각과 문화를 존중하고 인류의 평화에 기여한다.

발제자가 정의하는 다양성

국민 개개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나아가 그들의 입장에 서서,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을 실천해나가는 것.

책을 읽으면서 다양성에 대해 생각해본 부분

다양성이란 어쩌면 공직가치 중에 가장 현실과 맞닿아 있는 가치가 아닐까 생각했다. 공직자가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이익이다. 그리고 국민의 모양은 다양하다. 그들은 개인마다 외모, 가치관, 처해있는 상황이 전부 다르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공무원에게 주어진 매뉴얼은 보편값에 맞춰 만들어져, 이러한 국민 개개인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특히나 사회적 약자는 저자의 사례처럼 우리가 매뉴얼 대로 일을 처리하고 있는 사이 실생활에 엄청난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매뉴얼을 벗어나 업무를 한다는 것은 무척 어렵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책을 읽는 동안만큼은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다.

02
우리는 현재 다양성을 잘 지키고 있는가?

공직가치를 지키며 일하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다양성은 일상 업무를 하면서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직가치는 아니었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행정복지센터, 근로복지공단 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책을 읽고 생각해보니 학교에도 특수학급의 학생들이 있고,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와 민원인들이 있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성의 가치가 무엇일까 고민했다. 이번 선정 도서가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저자의 이야기이다 보니, 몸이 불편한 학생들의 시선에서 학교 시설을 둘러보게 되었다. 학교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안내촉지도, 점자블록, 핸드레일 등이 있다. 사실 매년 해당 시설들이 규격에 잘 맞게 설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공문이 내려온다. 기계적으로 내려오는 공문, 그리고 기계적으로 내용을 적어 제출하는 우리의 지난 모습이 떠올랐다. 시설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모든 시설을 정확하게 점검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유지보수에 신경 써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

03
다양성은 왜 지키기 어려운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다양성과 충돌하는 다른 공직가치와 민원이 있기 때문이다. 행정환경과 개인의 사고는 급격하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고, 민간기업과 같이 성과관리와 효율성도 점차 중요해지면서 다양성과 공공성 등 다른이들의 양해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는 공직가치는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장애인 특별전형 시행을 비판하던 여론, 서울시 강서구에 특수학교 설치 발표를 했을 때 물리적으로 방해했던 주민들, 학교 내 특수학급 신설을 반대하는 학부모들 등 다양성에 반하는 상황들을 봤을 때 공직가치 간의 혼란을 겪는 중이며 모든 공직가치의 기준을 만족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다.

우리 공무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받침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다양성을 실천하려면 국민이 처한 각자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그에 맞는 행정 활동을 펼쳐야 한다. 그런데 규정과 매뉴얼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며 때문에 기준값이 된다. 따라서 다양성을 위해 우리는 지침으로 따르고 있는 각종 규정, 매뉴얼을 벗어나 업무를 해야 한다는 데 어려움이 있다. 저자는 장애인 등록 절차에 대하여 "복지와 행정 모두 장애인 당사자에게 세심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이 구절을 읽자마자 '해당 공무원도 절차대로 일을 처리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해당 공무원이 저자가 원하는 대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을 벗어나 적극행정을 했을 때 필요한 가이드라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제해주기 위한 제도가 확실하게 작동해야 가능하다. 2019년에 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 규정을 발판삼아 과감하게 업무를 수행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한 공무원이 한 민원인에게 세심한 노력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공무원 정원의 증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04
책을 통해 배울 점은 무엇인가?

저자의 강한 정신력과 긍정적인 마인드에 감탄했고, 묵묵히 곁에 있어주는 가족들도 진한 감동이었지만, 저자가 장애인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와 혜택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신청 과정과 해외 비교사례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은 것이 인상적이었다, 그가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실질적이고 행정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게 큰 요인이었을 것이다. 행정복지센터에서의 장애인 등록과 복지카드 신청에서부터 공공요금 복지할인, 장애보조기 일정 지원,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경우 치료비 전액과 치료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70퍼센

트가 지급된다는 사실, 그리고 '장해'와 '장애'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 등 장애 관련 행정 다양성에 대해 정리해보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법률의 소급 적용과 과태료 인상 필요,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의 간소화, 의족 비용 지급률 확대 등 개선되어야 할 행정시스템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학교 안 편의시설 유지보수 등 가깝게 제 자리에서부터 할 수 있는 행정업무에 대해 세심하게 고민해보겠다. 점자블록 및 핸드레일 점검/보수, 안내촉지도에 공간 현황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음성 안내 및 직원 호출 버튼 등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시설은 없는지 주변부터 살피고 실천하면, 그들이 조금이나마 편리한 세상에서 살게 되는데 일조하게 되지 않을까.

05
헌규가 신규에게

헌규의 한 마디

넘쳐나는 업무에, 지치는 인간관계에, 박봉에 안그래도 여유가 없으신 와중에 공직가치를 논하니 기운이 더 빠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힘들 때마다, 제가 민간기업이 아닌 공직을 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기본적인 동기로 돌아가봅니다. 이익추구보다는 이타적인 시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공공가치를 실천하고자 했던 것, 사회적 형평과 약자를 지향하는 의미있는 직무를 하고자 이 길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고용안정이라는 장점도 있었지만요. 여러분들도 분명 쉽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고자 공직에 들어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동기를 가끔씩 되새기는 것도 힘든 시간과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 좋은 방법이 되실 겁니다.
2006년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따라 학교에도 많은 편의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내부시설, 위생시설은 의무사항이지만, 안내시설은 권장사항이더라고요. 저희 학교도 음성유도기는 없는 것 같아 행정실 업무 회의 때 실장님께 건의드릴까 합니다. 이것도 다양성이라는 공직가치를 위한 적극행정의 시작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근무하시는 학교나 지원청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헌규의 두 마디

면접 본 지 며칠 지나지 않으셨으니 공직가치의 개념은 다들 머릿속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달달 외우던 공직가치였지만 막상 업무를 시작하니 적용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당장 처리해야 할 업무는 너무나도 많고, 매뉴얼과 규정을 찾아 익히기도 벅찼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공직가치, 특히나 다양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지난 업무 처리 과정도 돌이켜보았습니다. 다양성이라는 가치가 추상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저자의 이야기와 연결해 보니 정말 현실에 맞닿아 있는 개념이더라고요. 동시에 우리가 조금만 용기를 내면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청으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공문이 내려오면 직접 나가서 현장을 둘러보는 것입니다. 보통 바쁘고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작년 자료를 많이 참고하기는 하지만요. 현장을 둘러보면 그것이 바로 점검이 될 테고, 시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우리의 눈에도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면 전문업체를 불러 수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몸이 불편한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조금의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우리가 일상 업무를 하는 중에도 아주 조금만 더 타인을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이 바로 공직가치를 실현하는 노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막 공직사회에 들어와 적응하기 바쁜 신규분들에게 공직가치의 실현까지 고민해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못 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 경력이 조금 쌓였을 때 '공직가치는 이런 게 있었구나', '나는 지금 일하는 기관에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하고 가볍게 고민을 시작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고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적극행정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헌규인 저희도, 신규인 여러분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 감상 한 마디

다양성은 생각보다 현실과 맞닿아있는 가치이다. 시설 업무를 처리하며 장애인 시설을 점검할 때, 좀 더 돌아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사회가 효율성, 경제성의 측면이 중요시되다보니, 배려의 가치를 우선시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다. 또한, 공직자로서 장애인 민원인의 요구를 폭넓게 수용하려면 매뉴얼을 벗어나야 하는데, 이런 용기를 내기 힘든 제도적 어려움이 있다.

장애인 시설을 확충하려면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는 시설, 계약 등 공무원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진다. 일이 많아지면 그만큼 감사에서 적발될 여지도 많아진다. 이러한 악순환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개개인에 맞는 복지행정을 시행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나야 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인센티브나 승진 등의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저자가 복지행정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내용이 다소 나오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이 행정에 도입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약 업무 진행할 때 ChatGPT처럼 내용을 입력하면 그에 대한 금액,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을 리스트업해주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처럼 복지행정 분야에도 민원인의 장애정도, 경제상황 등을 인공지능으로 정리해서 개인에게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일본 여행 갔을 때, 일본의 장애인 복지 시스템에 감탄했다.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 시각장애인 선생님을 돕는 일을 했는데, 처우가 좋지 않았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돕는 일조차도 인식이 좋지 않았다. 제도나 처우, 시설 면으로 많은 발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은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장애를 갖게 되었음에도 무너지지 않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개척해나가는 저자에게 크게 감탄했고,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은 '그냥 사람'임을 다시금 깨닫는다. 또한 내 자신이 미래의 언젠가 장애를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겠다는 용기가 생겼다.

스페셜 질문 두 마디

Q1 저자에게 삶의 희망을 갖게 해준 것은 취미였던 '자전거 타기'였습니다. 저자도 취미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었고요. 이런 가슴 뛰는 취미가 있나요? 없다면 어떤 취미를 갖고 싶은가요?

물을 무서워하지만 서른이 되기 전에 배우고 싶어서 수영을 등록했다. 갖은 노력 끝에 물에 뜰 수는 있게 되었다. 신체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수영을 다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

헬스를 하고 있다. 공무원으로서 취미를 갖는다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장기 입원을 하면서 독서를 취미로 갖게 되었다. 학습동아리에서 독서모임을 하게 되고, 새로운 분야의 책을 읽어서 기쁘다.

현악 연주를 하고 있다. 혼자하는 취미이기도 하지만 남들과 함께하는 취미이기도 하다. 합주를 하면서도 각자의 사정과 상황이 다르다. 다양성에 부합하는 가치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경험을 통해 다양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장애인 기관이나 노숙자를 위한 봉사연주를 통해서도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첫 근무지에서 관사에 거주하며 여유시간에 피아노를 배웠다. 현임 학교로 발령이 나면서 그만뒀는데, 다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의 저자처럼 의지할 수 있는 취미를 생각해보아야겠다.

마라톤을 취미로 하고 있다. 살면서 힘든 순간들이 있었는데, 달리는 동안에는 숨이 차오르면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나 자신과의 대화를 하게 되었다. 굉장히 좋은 취미라고 생각한다.

테니스를 최근에 다시 시작했다. 운동을 하며 느낀 것은, 나는 의족을 차고 3일만에 걸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것이다. 저자가 대단하다고 느꼈다.

공무원이 되기 전, 여유시간이 많을 때는 취미부자였다. 지금은 퇴근하고 그 많은 취미들을 다 유지할 시간이 없어서 독서 정도만 취미로 갖고 있는 듯하다. 내가 힘들 때 끝까지 의지할 곳은 책이라고 생각한다.

Q2 행정업무는 지침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다양성을 위한 적극행정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제도가 있으면 논의해봅시다. (저자는 공공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 여러 곳에 직접 전화해서 신청해야하는 것과, 장애인등록이 끝났음에도 복지카드가 없으면 장애인 주차 할인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불편함을 느꼈다고 했다. 또 의족비용 지원에 있어서도 사회복귀 의지와 건강 상태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의 인원이 늘어나야 하고, 적극행정으로 인한 규정 위반 등이 발생할 때에 면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적절한 인센티브 등의 유인책이 필요하다.

노인일자리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 도우미 인력을 채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았다.

이 책을 읽고 학교 시설을 둘러보았는데,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허술한 것이 보였다. 안내촉지도, 장애인 화장실 비상벨, 장애인 화장실 너비 등 보완이 필요한 시설이 많다. 가까이 있지만 평소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둘러보게 되고, 미흡한 부분에 조금씩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장애인을 위한 정책들이 적극행정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정책을 결정하는 공무원들이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제시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

전임교에서 후임자로 발령이 나서 오신 분이 장애인이었는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비장애인 한 명이 추가로 발령이 났다. 장애인의 근무환경을 배려한 적극행정일수도 있지만, 오히려 본인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쁠 것 같았다. 여기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다.

청렴성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

김영란, 이범준 / 도서출판 풀빛

*** * * 책 소개 * * ***

김영란법의 제안자 김영란이 명쾌하고 진솔하게 답하는 청탁금지법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부정부패 청산의 역사에 결정적 전기를 마련한 김영란법. 시행 1년 동안 과연 대한민국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원안자로서 지금껏 말을 아껴 온 김영란이 청탁금지법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법관 출신으로서의 경험, 법안 통과의 우여곡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금수저 방지법 입법의 좌절, 청탁금지법의 개정 방향까지 모든 것을 담았다.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는 김영란의 두 번째 대담집이다. 첫 대담집은 검사 출신인 경북대학교 로스쿨 교수 김두식 교수와 함께 청탁금지법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로 엮였다. 공정한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진지한 고민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두 책은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새 대담집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는 그동안의 우리 사회 변화와 청탁금지법을 연관 지어 살펴보고, 청탁금지법이 어떤 점에서 유지되어야 하고 어떤 점에서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담으려 했다.

이 책이 단순한 청탁금지법 해설서가 아니라는 점이다. 부조리와 반칙이 없는 사회를 바라 온 김영란이 2017년 한국 사회에 던지는 웅숭깊은 질문들이다. 김영란은 29년 법관으로서의 삶을 털어놓으면서, 사회의 부조리는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생각했는지, 우리의 양심은 어떻게 지켜지는지, 정의로운 사법은 어떻게 실현되는지 등을 얘기했다.

- 출처: 알라딘 인터넷서점(www.aladin.co.kr.)

01
청렴성이란?

사전적 의미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는 성질.

공무원의 6대 의무 중 하나인 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김영란법과 청렴성

공직가치 하면 대부분 제일 먼저 '청렴성'을 떠올릴 정도로 청렴은 공무원에게 매우 가까운 가치이다. 특히 회계를 담당하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에게 청렴성은 매우 중요하며 절대적으로 준수해야 할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 책의 저자이신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입안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으로 인해 시민들에게도 많이 가까워진 것 같다.

02
우리는 현재 청렴성을 잘 지키고 있는가?

대체로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청렴'은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이기에,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부정한 금품 등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본다. 청렴의 중요성은 고위공직자로 갈수록 중요해진다. 권한과 책임의 범위가 위로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공정성을 가지고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도 여러 걸림돌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이 입법되며 과거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청렴성을 적용하고 있다.
과거엔 공직자 본인이 청렴을 추구함에도 주변에서 거절하기 힘든 청탁 등이 들어왔을 때 곤란한 상황이 많이 생겼다면, 현재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당연하게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이는 더욱 널리 정착되어야 할 문화라고 생각한다. 저자도 '청탁금지법'의 의의가 공직자를 청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고 아직 완전하지 않은 반쪽자리 법안이다. 나열식으로 열거된 사례들이 포괄적 입법으로 발전하고, 이해충돌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어 그것을 모두가 지키도록 노력한다면 더욱 청렴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03

청렴성은 왜 지키기 어려운가?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청렴의 의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종종 또다른 공직가치와 충돌하는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청렴성을 중시하여 일의 절차와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과의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내부고발을 통해 부패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비밀 유지의 가치가 침해될 수 있고, 내부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과정에서 기관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청렴성을 지키기 위해 엄격한 규정을 적용할 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도 여러 경우에 청렴성의 준수로 인해 공직자로 하여금 딜레마를 겪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고, 공직자 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청탁과 뇌물로 원하는 바를 얻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고정되어야 한다.

04

책을 통해 배울 점은 무엇인가?

'김영란법'이라는 용어는 매우 친숙하지만,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는 아는 바도 전혀 없고, 사실 크게 궁금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니 김영란 전 대법원장이 어떻게 국민권익위원장을 맡게 되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청탁금지법을 입안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입법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었고, 최종 법안은 초안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앞으로 이 법안에 더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세세한 설명을 직접 전해들은 느낌이었다. 청탁금지법이 더욱 친숙하게 느껴지고, 저자의 바람대로 이 법률이 더욱 발전하여 청렴한 사회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무엇보다도, 이 법이 공무원을 청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점에 크게 공감이 갔다. 학교라는 작은 기관에서 근무하면서도 작은 부탁에서부터 크게는 청탁인지 헷갈리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법을 통해 불편한 요구를 떨쳐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했다. 그 과정에서 이 법의 주요 조항을 살펴보고,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자세하게 배울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했다.

그리고 저자의 적극행정의 태도에도 크게 감탄했다. 이미 대법관으로 퇴직하고, 행복한 은퇴라이프를 위한 시간을 보내도 모자란 마당에 국민의 권익을 위해 위원장의 자리를 수락하고 공직자 및 우리 사회를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을 만들어내기 위해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하여 현재에 이르렀을텐데, 이런 분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가 좀 더 믿을 수 있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다.

05
헌규가 신규에게

헌규의 한 마디

'청렴'은 공직자의 중요 의무로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어보셨겠지요? 신규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실수를 저질러도 되지만 단 하나, '횡령'만 안 하면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청렴과 투명성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업무에서는 실수해도 되고, 틀려도 됩니다. 원래 처음부터 잘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청렴성만 지켜나간다면, 대부분의 실수는 다 수습할 수 있는 법이니 업무처리가 서툴러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횡령만 안 하면 됩니다. 너무 쉽죠?

헌규의 두 마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에서 본래 허가가 나서는 안 되는 건물이 관련 공무원의 비리로 허가가 나 많은 인명 피해를 낸 '삼풍백화점', '화성 씨랜드 참사' 사건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비리가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져 현재 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놀고 먹는다, 철밥통이다)과 안타까운 사건들(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자살)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렴'은 공무원 면접 때부터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주요 가치로 익혀왔지만 우리와 같은 하급 공무원들에게는 어길 일이 없어 한없이 멀게만 느껴지는 공직가치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러한 가치를 대하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국민의 삶,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가장 가깝고도 중요한 공직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책임감을 갖고 임한다면 멀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청렴'이란 공직가치가 조금은 선명하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 감상 한 마디

책 목록을 살펴보면, 소제목 중에 '처벌법이 아닌 청탁에 대한 매뉴얼', '한우와 굴비를 선물할 수 있다'가 보인다. 이 법은 사람을 옭아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절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이 돋보인다. 현실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대단하게 느껴졌다.

한 교사분이 관사에 대한 질문을 하셔서 지원청에 문의를 했더니, 해당 교사가 관사 입주자 명단에 없는 상태였다. 알고보니 다른 분이 관사 신청을 하고, 그 교사를 대신 거주하게 한 것이었다. 결국 규정 문제로 그 분을 퇴거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청렴에 대한 매뉴얼로 자리잡고 있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다.

과거 조선시대에 공직자들의 월급이 적을수록 부패가 많았다고 한다. 우리 역시 적은 봉급을 받는데 청렴을 너무 강조하는 건 아닌지, 다소 야속하게 다가오기도 한다. 실무적으로는 계약 업무 진행 시, 수의계약 체결확인서, 비위면직자 확인서 등을 받는데 관련 법규가 입법되기 전에는 이런 절차가 없었을 것이다. 절차를 지키는 것이 귀찮기도 하지만, 의식 있는 법조인들이 더 나은 세상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해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계약과 공사, 물품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청탁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견적서 등을 선별할 때, 리베이트를 제안하거나 청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큰 의미에서 보면 공사 자체를 잘 하는 것보다 행정상 필요한 서류를 잘 챙겨주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청렴하지 않은 행동일 수 있다. 그렇지만 효율적으로 공사 진행을 해서 예산을 아껴도 개인에게는 이득이 없다. 그러므로 업무상 편의를 위해 청렴을 저버리지 않도록 임금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청탁이나 비리가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도 강력하게 필요하다.

맡은 업무가 주로 서류검토 등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자리가 아니라서 청탁이 들어올 일은 없을 것 같다. 다른 자리에 갔을 때 청렴에 대해 좀 더 깊게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우리의 위치가 청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은가. 다들 청렴의 가치를 잘 지키고 있을 것 같다.

신규발령이나 전보 발령 시, 기관을 방문할 때 간식 등 작은 선물을 사 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은 청탁금지법에서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청탁금지법의 발의로 인해 이런 부분들에 부담이 조금 덜어지긴 했지만, 아직 소소한 정으로 남아있는 부분까지 적용이 되는 건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현재 감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감사관 중 한 분과 친분이 있지만 입장이 조심스러워 개인적인 연락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하다.

💬 스페셜 질문 두 마디

Q1 이 책의 저자이신 김영란 전 대법관은 대법관(공무원) 퇴직 후,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하는 중에 '청탁금지법'을 입안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퇴직 후에 어떤 은퇴라이프를 꿈꾸시나요?

김영란 대법관의 업적이 대단하다고 느끼지만, 이런 삶이 내 스타일은 아니다. 제 몸 챙기며 사는 것이 꿈이다.

퇴직 전까지 경제적인 안정성을 구축하고 싶고, 이후에는 개인적인 삶을 위해 살고 싶은데, 이런 면에서 김영란 대법관님은 정말 존경스럽다고 생각한다. 물론 퇴직 전까지는 현재의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꽃집을 운영하는 것이 꿈이다. 꽃을 선물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좋아보이기 때문이다. 창업 비용이 5천만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

책방을 하면서 글을 쓰는 공간을 꿈꾸고 있다.

시설미화원으로 취직을 하고 싶다. 정년인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 어디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내 능력을 발휘해 일할 수 있다.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 싶다. 물론 파이프라인을 잘 뚫어놓았다는 가정 하에. 즐기는 스포츠가 있었으면 좋겠고, 퇴근 후에 꽃을 사갈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글도 써보고 싶다.

은퇴라이프에 앞서 은퇴 자체를 빨리 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의 월급 수준으로는 빨리는 못할 것 같은데, 두 번째 방안을 좀 더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주식과 코인이 대박이 나서 파이어족을 하고 싶다.

교직원공제회에 최대한 많은 저축을 하고 있다. 현재를 아껴서 미래의 나에게 주는 개념이다. 음악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고 있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등을 제안해서 팀을 운영하고 싶다. 그리고 퇴직 교원이 기간제교원으로 다시 채용될 수 있듯이, 일반직 공무원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퇴직 공무원들이 신규 공무원을 지원하는 멘토제도를 운영하면 좋겠다.

Q2 공정한 채용을 위해 올해부터 교육공무직원 채용 면접 시 외부위원 1명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규정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효성은 없고, 실무자에게 부담만 된다고 생각한다. 공정성의 정도가 딱히 향상될 것 같지 않은데,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라기보다 탁상행정이라고 생각된다. 악법은 법이 아니다. 최근의 코레일-성심당 사례에서 해당 규정은 공정위에서 책정한 규정이다. 국민정서랑 괴리가 있는데, 이런 법은 바꿔야 한다. 실무자들이 규정을 벗어난 적극행정을 행할 수는 없기에, 실효성이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

채용 면접시 외부인원을 위촉하는 것이 학교에서는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과 관련이 없는 인원이 하는게 낫다고 생각한다. 상급기관에서 채용을 주도하는 것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과거 선관위에서 채용비리 사건이 터진 적이 있었다. 공정성을 위해서 외부인원을 위촉해도, 어차피 다 지인을 위촉하게 된다. 대안책으로, 무작위 추첨으로 채용위원을 위촉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았다.

교육지원청에서 외부위원을 명단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개별 학교에서는 그 명단 안에서 채용위원을 위촉하면 좋을 것 같다.

학교장이 채용할 수 있는 근로계약이 두 가지인데, 대부분 단순한 업무를 하는 자리이다. 그런데 학교에만 너무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지, 투명성보다 효율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런 부분까지 외부인원을 투입해서 채용하는 것은 업무 과중이고,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학교 실정에 맞게 조율했으면 좋겠다. 대체근로자 채용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긴급하게 채용하는데, 외부인원까지 위촉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학교실정과 맞지 않는 규정이다.

투명성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김태일 / 웅진지식하우스

*** * * 책 소개 * * ***

재정, 즉 국가가 돈을 거두고 쓰는 규모와 방향은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동시에 국가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정부 활동이다.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이자 좋은예산센터 소장 김태일 교수는 재정 문제란 결국 두 가지로 귀결된다고 말한다.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거둘까?',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쓸까?'

이 책은 정부가 세금을 거두는 원칙은 무엇인지,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는지, 정부가 시장보다 비효율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등 재정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담고 있다. 누구나 충분히 접했을 재정의 핫 이슈를 조목조목 풀어주고 우리 재정의 변화상과 미래에 놓인 걸림돌을 짚어준다.

재정은 경제활동인 동시에 정치, 행정, 사회가 맞물려 움직이는 복잡한 과정의 결과물이다. 경제학과 행정학, 정책학을 두루 전공한 저자는 어느 한쪽 학문 영역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적절한 비유와 설명, 개념을 끌어와 재정 문제를 입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개인의 세금부터 지방재정, 국가재정, 세계 각국의 재정 문제로 범위를 넓혀가며 재정에 관한 다양한 차원의 주제들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다루어 한 권으로 재정의 개념과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출처: 알라딘 인터넷서점(www.aladin.co.kr.)

01
투명성이란?

정부가 하는 모든 활동은 개인정보 보호나 국가안보 등과 같이 특정 사항이 아닌 이상, 국민에게 공개가 되어야 한다. 재정의 투명성이란, 조세를 걷는 세입 단계(조세의 원칙)부터 어느 곳에 조세를 쓸지 세출단계, 국가채무 등 광범위하게 지켜야 하는 가치이다. 정부의 활동이 투명해지면 국민이 정부의 주인역할을 잘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투명성이란 중요한 가치이다.

02
우리는 현재 투명성을 잘 지키고 있는가?

과거와는 달리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 각종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국가의 총 세입세출액, 소득세율, 사회보험료 등의 조세부담률과 같은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우리 업무 중에도 공문서 정보공개 설정으로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지출 등 각종 증빙 자료를 누구나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따라서 현재 공무원들은 업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며 투명하고 정확한 행정정보 공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03
투명성은 왜 지키기 어려운가?

투명성, 공정성, 민주성 등 여러 공직가치가 있다. 지키기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는 추상적이기 때문이 아닐까싶다. 추상적이기 때문에 사람들 각자마다 똑같은 정의를 내리지 않는다. 규정과 지침이 모든 부분에 있어 답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규정, 지침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바라는 공직가치를 충족시키는 것이 어려운 것 같다. 두 번째는 민간과 달리 공공부문의 애매함이 있기 때문이다. 민간은 이윤의 극대화라는 목표가 있기에 그 목표를 추구하면서 노선을 잘 잡으면 되지만, 공공부문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 과정에서 민주성, 공익성, 다양성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다 보면 지키기 어려운 게 당연할지도 모른다. 목표가 하나일 때 보다, 동시에 여러개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어렵듯이, 추상적이고 다양한 목표와 이해관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04
책을 통해 배울 점은 무엇인가?

소위 진상 민원인들의 단골 멘트가 되어버려 희화화되기 일쑤인 '내가 낸 세금으로 일하면서 (이 따위로 할거야)!'가 사실은 좀 더 적절한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된다면 우리들에게 깊이 생각할 거리를 주지 않을까 싶다. 공직자가 되었을 때 집행하게 되는 모든 예산은 민간이 써야할 돈을 - 예를 들자면 우리들의 피 같은 급여를 - 세금으로 징수해 가져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자의 책임감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민간에서도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 당연히 궁금해할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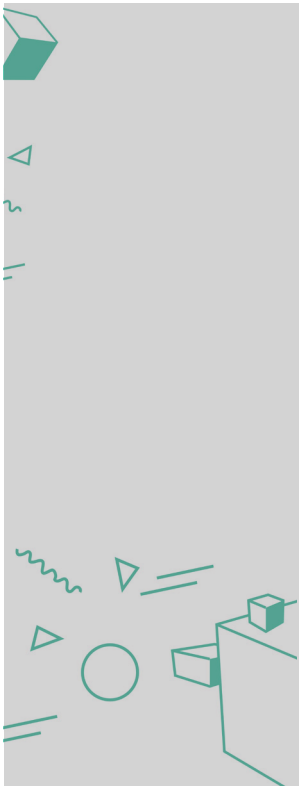
민간의 돈(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은 국민들의 생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장 좋은 것은 투입한 돈만큼, 또는 그 이상의 성과를 내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때로는 많은 돈이 투입되었지만 성과는 미미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어떠한 사람에게는 그 결과가 좋은 성과로 여겨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 결과가 그다지 좋지 않은 성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서로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찌되었든 정부의 지출은 같은 금액을 민간이 사용했을 때보다 사회적으로 더 큰 가치를 지녀야 그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정부의 지출이 좀 더 효율적으로 행해질 수 있을까? 그 해답은 '투명한 정보 공개'에 있다. 지출 과정 전반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다면 타당성이 없는 사업에 대한 지출, 불필요한 지출, 낭비되는 예산이 태연하게 수행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05
헌규가 신규에게

헌규의 한 마디

첫 발령을 교육지원청으로 받았던 분이 발령 받고 얼마 되지 않아 저에게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 지금 무려 5백만원이나 되는 품의를 올리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벌벌 떠시던 그분이 현재 5억이나 되는 품의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처리하게 되었는데요. 교육지원청에서 근무를 시작하건, 행정실에서 근무를 시작하건, 업무를 하다보면 평소에 만져볼 수 없었던(?) 규모의 예산을 다루게 되는 일도 흔합니다. 신규 때는 잘못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내가 물어내어야만 하는 것인가 하고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 처리의 모든 과정을 매 순간 팀장님 또는 실장님과 공유하고 시스템상으로도 처리 내역을 남겨 놓으며 업무 처리 절차 전반을 투명화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야 혹여 실수가 생기더라도 누군가가 알려줄 수 있고, 그



를 바탕으로 얼른 수정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답니다.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혼자 끙끙 앓으며 비밀리에 숨겨 놓기보다는 차라리 '문제가 있었지만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하고 해결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을 때에 더욱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공직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헌규의 두 마디

공문을 처음 기안할 때 공개할지 부분공개인지 비공개인지 헷갈리고 당황스러웠지만 하다보면 차츰 익혀지고 이제는 바로바로 공개유형 선택하고 호수도 선택하고 있어요 . 어렵지 않아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절차 중에 구체화하여 들어간 것들이 있어요. (며칠 간 게시판에 채용공고를 낸다거나, 평가 기준을 학교홈페이지에 업로드 한다거나, 결과를 공개하고 며칠 간 이의신청을 받는다거나) 그러한 절차들을 잘 지키면서 하시면 직장에서 인정받는 공무원이 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기간 확보)

📖 감상 한 마디

책 내용 중에 조세부담금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마다 어떤 세금이 걷히는지 사례도 있는데 생각보다 다양하게 걷고 있어서 놀랐다. 아파트 사면 학교용지부담금, 영화보면 영화발전부담금 등등. 내가 국가재정에 이렇게나 힘을 쏟고 있다니(?).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면 적은 금액을 걷고 있다는 점에 한 번 더 놀랐다.

우리 업무 중에 투명성과 가까운 업무가 뭐가 있을지 생각해보았다. 재정공개(업무추진비, 카드내역 공개) 이 업무가 생각났다.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올해부터 업무추진비 영수증을 받을 때 영수증에 내역이 나와 있지 않아도 되는데, 업추비를 사용한 시간은 공개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지출 담당자의 일을 줄이기 위해서라기에는 카드 긁은 시간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니 골치가 아프다. 내역 공개를 안 하면 무분별하게 사용할 확률이 높을테니 말이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거대한 규모의 국가 예산 중 일부를 내가 직접 만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한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보면, 국가 재정의 수혜를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을듯하다.

국가에서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줄 수 있는 책이다. 평소에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왜 중요한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나에게 국가 재정의 흐름과 예산 배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책의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세금이 단순히 개인의 돈이 아니라 사회적 자원으로서, 국민 모두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었다. 우리가 낸 세금은 도로, 복지, 교육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투자되며, 그 사용이 효율적이지 못하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설명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또한, 정부가 세금을 어떻게 배분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투명성과 감시의 필요성을 강조한 부분도 매우 중요하게 느껴졌다.
공공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은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깨달음을 주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내가 낸 세금이 어떤 가치로 돌아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은 매우 타당해 보였다.
전체적으로 이 책은 정부 재정에 대해 잘 모르던 나에게 체계적인 이해를 제공해 주었으며, 앞으로 세금과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가의 예산 운용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느끼게 해준 책이었다.

스페셜 질문 두 마디

Q1 직접 경험한(또는 들은) 예산 낭비 사례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그와 반대로 예산을 잘 활용한 긍정적인 사례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한번 다 같이 생각해봅시다.

조형물 설치 예산 낭비에 관한 뉴스를 많이 접했다. 강남의 "강남스타일" 손을 형상화한 조형물 등, 설치했는데 아름답지도 않고 흉물스러워서 철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조형물은 실용성보다는 보는 즐거움이나 상징성, 예술성을 위해 설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학교에서의 예산 낭비를 생각해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교사들의 무분별한 간식 사기이다. 예산을 일년 동안 균형있게 사용하지 못하고 회계말에 예산 잔액을 털기 위해 제일 구매하기 쉬운 간식을 사곤 한다. 아이들 간식을 챙겨주는 것도 좋지만 1년 계획을 세우고, 목적 있는 구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학식을 앞두고 한 선생님이 아이스크림 품의를 올려 구매해드렸는데, 냉장고에 둔 채로 방학이 시작되었다. 우리 학교에서는 방학식 다음주부터 일주일간 공사를 위해 정전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 아이스크림은 고스란히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 자잘한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엄연히 예산 낭비고, 모이면 큰 돈이다.
예산을 잘 활용한 사례는 도로에 색이 들어간 유도선을 그린 공무원의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국민이 좀더 편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현재 근무하는 학교에서 실수로 잘못 구입한 세탁기를 부품 문제로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다. 해결 방법이 없고, 내용 연한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폐기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식의 눈먼 돈이 낭비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예산을 잘 활용한 사례는 충주시 유튜브를 운영하는 '홍보맨' 사례가 있다. 1년에 60여만원이라는 극히 적은 예산만을 사용하여 충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성과를 냈다.

학교의 경우,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률을 위한 학교 지출로 인한 예산 낭비가 대표적인 예시라고 생각한다. 집행률이 일정량이 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주어지기에, 무언가는 구입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일단 돈을 쓸 수 있는 쪽으로 소비를 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다음 해가 되었을 때 교직원이 바뀌면 뭘 샀는지, 어디에 보관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반복된다. 이러한 부분은 제도의 수정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예산 낭비의 사례로는 공항, 철도 등 각종 대형 인프라 사업이 원래 예산보다 초과지출 되거나 축제 등 대형 행사에서 진행업체가 과다하게 비용을 부풀려 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잼버리대회가 끝난 후 완공된 잼버리 건물처럼 더이상 진행에 실익이 없는 사업도 그대로 진행시키는 경우가 있다.
예산 절감의 사례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절차를 전산화하여 인력과 자원을 절감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이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전기료를 절감한 사례를 들 수 있는데, 태양광 발전 설치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이 포함된다.

Q2 학교의 예산집행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교에서 계약과 지출을 담당하고 있는데 학교 예산집행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출로 이어지는 계약을 할 때, 업체를 선정한다. 업체를 선정하는 첫 번째 기준은 가격과 품질도 있겠지만 지역 제한 관련한 공문이 내려온 이후로는 업체의 소재지를 우선적으로 보고 있다. 해당 업체의 소재지가 경기도인지 아닌지. 공문 내용은 되도록 관내 업체, 즉 경기도 업체나 학교가 소속된 지역 업체에(의정부면 의정부 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만일 관내 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담당자는 사유서를 작성해야 한다. 학교마다 재정규모는 다르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는 대부분 억대의 예산을 운용하므로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학교이전이 거론될 때마다 그 지역이 들썩거리고 반대하는 건 학생들이 주변 식당, 학원, 편의점 등에 쓰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구입하는 다양한 물품과 서비스를 가능한 지역 내의 업체에서 제공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동네에 서점이 하나 있는데, 아마도 그 서점은 마을에 위치한 학교들에게 책을 독점 납품하는 것으로 영업을 이어나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요즘 같은 시절에 개인에게 책을 판매하는 것만으로 장사가 될 리 없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학교의 예산은 지역 업체들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고 본다.

학교의 예산집행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다. 한 학교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크고, 또한 여러 학교가 있기 때문이다. 즉 사용하는 돈의 규모가 크기에 자연스럽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예를 들어 급식 재료비 계약만 놓고 봤을 때, 전교생 700명인 중학교 기준 1년에 4~5억 정도가 나가기도 한다.(학교마다 다를 수 있고,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 부분만 예시로 들었으나, 여러 부분에서 학교는 예산 집행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학교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 일자리 창출이 크다고 생각한다.
1. 교직원 고용: 교사, 행정직원, 조리사, 청소 직원 등 다양한 직종에서 일자리를 제공.
2. 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예: 전산, 차량, 시설 관리) 제공 업체들이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
3. 프로그램과 행사: 방과후교실, 스포츠, 문화 행사 및 특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임시직이나 계약직 일자리가 창출됨.

애국심



하얼빈

김훈 / 문학동네

*** * * 책 소개 * * ***

'우리 시대 최고의 문장가' '작가들의 작가'로 일컬어지는 소설가 김훈의 신작 장편소설 『하얼빈』이 출간되었다. 『하얼빈』은 김훈이 작가로 활동하는 내내 인생 과업으로 삼아왔던 특별한 작품이다. 작가는 청년 시절부터 안중근의 짧고 강렬했던 생애를 소설로 쓰려는 구상을 품고 있었고, 안중근의 움직임이 뿜어내는 에너지를 글로 감당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들여 '인간 안중근'을 깊이 이해해나갔다. 그리고 2022년 여름, 치열하고 절박한 집필 끝에 드디어 그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하얼빈』에서는 단순하게 요약되기 쉬운 실존 인물의 삶을 역사적 기록보다도 철저한 상상으로 탄탄하게 재구성하는 김훈의 글쓰기 방식이 빛을 발한다. 이러한 서사는 자연스럽게 김훈의 대표작 『칼의 노래』를 떠올리게 하는데, 『칼의 노래』가 명장으로서 이룩한 업적에 가려졌던 이순신의 요동하는 내면을 묘사했다면 『하얼빈』은 안중근에게 드리워져 있던 영웅의 그늘을 걷어내고 그의 가장 뜨겁고 혼란스러웠을 시간을 현재에 되살려놓는다.

난세를 헤쳐가야 하는 운명을 마주한 미약한 인간의 내면에 집중하는 김훈의 시선은 『하얼빈』에서 더욱 깊이 있고 오묘한 장면들을 직조해낸다. 소설 안에서 이토 히로부미로 상징되는 제국주의의 물결과 안중근으로 상징되는 청년기의 순수한 열정이 부딪치고, 살인이라는 중죄에 임하는 한 인간의 대의와 윤리가 부딪치며, 안중근이 천주교인으로서 지닌 신앙심과 속세의 인간으로서 지닌 증오심이 부딪친다. 이토록 다양한 층위에서 벌어지는 복합적인 갈등을 날렵하게 다뤄내며 안중근이라는 인물을 바라보는 시야의 차원을 높이는 이 작품은 김훈의 새로운 대표작으로 소개되기에 모자람이 없다.

- 출처: 알라딘 인터넷서점(www.aladin.co.kr.)

01
애국심이란?

애국심이란 말 그대로 **愛國心,**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말한다.
나라에 대한 깊은 애정, 충성심,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애국심이라고 한다.
애국심은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가치, 자부심에서 비롯된 가치이다.
비록 바쁜 현대사회에서는 점점 그 가치가 망각 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울했던 시절이 있을지언정) 독립된 주권국가로서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지탱해 온 중요한 가치이다.

02
우리는 현재 애국심을 잘 지키고 있는가?

애국심은 바쁜 현대사회에서 지켜지기 어려운 공직가치이다.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 중심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가치가 더 중시되는 현대사회로 바뀌면서 애국심은 자칫 잊혀지기 쉽고, 지켜지기 어려운 공직가치가 되었다. 그렇다면 애국심을 잘 지키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국가적 방법

비록 다원화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한다.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고취시킬 수도 있을 것이며, 다양한 사회적 캠페인, 국가별 대항전(스포츠)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 또한 좋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이 국가를 생각하고 위기상황(전시상황 등)에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를 있게 하신 분들, 가령 독립투사나 6·25 참전용사들이 받고 있는 대우를 생각했을 때, 과연 잘하고 있는지 국가는 생각해보아야 한다.

개인적 방법

존 F. 케네디는 국가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고 하였다.
위처럼 국가가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해야될 일이 있듯이 개인도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해야될 일이 있다. 국가는 단순히 내가 살고 있는 땅 이상의 가치이다.
국가는 나의 생활공간이자, 나의 뿌리 정체성이다. 하얼빈 책에서 안중근 의사는 '나는 국민의 의무로써 내 몸을 희생하여 어진 일을 이루고자 했을 뿐이다' 라고 하였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생활들은 조상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내가 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찾아보아야 한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 국가 기념일에 태극기를 다는 것 같이 작은 것부터 말이다.

03

애국심은 왜 지키기 어려운가?

애국심은 공무원에게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부여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할 수 있게 하고, 공무원의 헌신을 강화시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인데, 이런 공무원으로서의 애국심은 단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는 공직가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중요한 공직가치이지만 이것을 지키기 힘든 이유로 몇 가지가 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지만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져 애국심이 떨어질 거라 생각된다. 또한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인해 연금 혜택이 줄어들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공무원이 많아졌다.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지만 국가는 공무원을 홀대한다는 마음이 들어 애국심이 떨어질 거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긴 하지만) 공무원을 세금 도둑으로 취급하거나 공무원 일은 원래 머리 안 좋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비하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로서도 애국심이 떨어지는 게 느껴진다.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절로 생기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04
책을 통해 배울 점은 무엇인가?

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가 어떤 역경을 헤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헬조선, 헬조선 외치는 사람들이 한 번씩 이 책을 읽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졌으면 좋겠다. 비록 나는 안중근 의사나 다른 독립운동가들처럼 우리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수는 없을 거 같지만 한 명의 공무원으로서 조그마한 일이라도 나라에 보탬이 된다면 열심히 하려고 한다. 요즘 일에 대한 열정이 조금 떨어진 참에 다시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받았다.

05
헌규가 신규에게

헌규의 한 마디

이 책은 공직에 입문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느껴왔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평범한 직장인, 월급쟁이로 변해가는 저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생활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공무원으로서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공직에 임해야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탱하는 1백만 공무원 중 1명이니까요.

헌규의 두 마디

공시생 시절 칠판 빼곡히 적힌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를 보며 소름이 돋았던 기억이 납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최고입니다. 이번 기회에 애국심을 다졌는데, 일이 힘든 와중에 조금이나마 헤쳐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일이 힘들고 지칠 때 애국심을 끌어올리는 영화나 책을 한번 보는걸 추천드립니다.

📖 감상 한 마디

아무 생각 없이 월급쟁이로 살아오다가, 공시생 시절 한국사를 공부하며 만주벌판을 누린 우리나라의 좋은 순간부터 일제감정기까지 흥망성쇠를 보며 느꼈던 뜨거운 애국심을 다시금 느낀 계기였다.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느꼈다.

서른 한 살의 안중근이 지금의 나와 동년배인데, 나라를 위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하고 먹먹했다. 시대가 서른 한 살 청년의 일상을 뺏어간 느낌이다.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장면이 멋있었고, 안중근이 죽는 장면에서 가슴이 아팠다. 현재까지도 그 시체를 찾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다.

극적인 장면 없이 담담하게 풀어내서 생각할 여지를 더 주었고, 그의 애국심이 가슴에 와 닿았다. 안중근 의사는 나라면 절대 못했을 일을 하신 분이다.

당연히 안중근의 영웅 서사일 거라 단정하고 읽기 시작했는데 예상이 빗나갔다. 그의 거사에 엄청난 결의에 찬 모습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우덕순과 별다른 대화도 없이, 이토의 '작용'을 멈추게 하는 게 마치 자신의 운명인 듯, 실탄 일곱 발과 백 루블을 지닌 채 그저 앞으로 나아가는데, 독자인 나도 아무 질문을 할 수 없었다.
이토를 쏘러 갈 때 입자며 새 옷을 사고 멀끔하게 이발을 하고 찾을 수 없게 될 게 뻔한 사진을 찍는, 거사를 앞둔 상황이라고는 상상이 안되는 두 청년의 덤덤한 모습을 그려보자니, 마음이 아려왔다.
이토를 쏘고 두 달여 동안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안중근 진술은 담담하면서 명확했고, 작가의 서술처럼 질문이 답변을 누르지 못하는 연속이었다.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므로 도주할 생각은 없었다.", "내가 이토를 죽인 까닭은 이토를 죽인 이유를 발표하기 위해서다." 안중근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다음, 동양평화와 자주독립을 외치고 싶었던 것이다. 담담했던 과정 속에 나름 치밀한 계획을 발견한 부분이었다. 안중근이 사형장에서 마지막으로 외치고 싶었던 말, '동양평화만세'. 끝내 거절당했지만, 그의 거사는 이후 중국과 우리나라의 항일 투쟁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거사 후에, 안중근이 귀의했던 천주교는 그를 부인했고, 대한제국 황실은 굴욕적으로 용서를 구했다. 찾아보니 함께 거사를 계획했던 우덕순은 밀정이 되었고, 뮈텔 주교는 일제에 첩자 역할을 했다니 참... 1993년에 김수환 추기경이 안중근의 추모미사를 하며 천주교 신자직을 복권시켜 주었다고 하니, 다행인건지 알량한 면죄부인 건지, 씁쓸했다.

담담하게 써 내려가는 김훈 작가의 문체를 좋아한다. 끓어오르는 애국심을 주체하지 못해 거창하게 거사를 모색하는 영웅의 모습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안중근이 이토를 쏘아야 하는 이유를 가슴 먹먹하게 풀어내주었다. 여운이 많이 남는 작품이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다.

스페셜 질문 두 마디

Q1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고 느낀 순간이 있습니까? 혹은 나라를 생각하면서 가슴 벅찬 순간이 있었나요?

군 생활을 하던 시절,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에 보람을 느꼈다.

소위 '국뽕'이라고 하는 유튜브 영상을 가끔 보는 편인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좋은 점에 감탄하는 영상들을 볼 때, 자랑스럽다고 느낀다.

최근 파리 올림픽이 개최되었는데, 국가대항 스포츠 경기를 볼 때 나라에 대한 의식이 커지는 것 같다. 특히 한국 양궁이 압도적인 실력으로 세계를 제패한 것이 자랑스럽다.

김연아 선수가 대회에서 우승을 했을 때, 은메달과 동메달이 모두 일본 선수였던 적이 있다. 일장기를 누르고 태극기가 가장 높은 곳에 걸린 것이 무척 자랑스러웠다.

최근 북한에서 탈북한 군인들이 늘어났다. 과거에는 북한이 경공업이 더 발달했었는데, 현재는 산업의 모든 면에서 남한이 더 우세하다. 열악한 상황에서 더 발전한 것이 자랑스럽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서비스들이 자랑스럽다. 빠른 인터넷, 배달서비스, 행정이나 치안 서비스 등이다. 밤에 운동하는 여자 광고가 해외에서는 비판받았지만 우리나라는 밤이 꽤 안전한 나라이다.

일제강점기 배경의 드라마나 영화 등을 볼 때 가장 뭉클하다. 별개로, 파리 올림픽 때, 누군가가 우리는 힘들게 일해서 연금을 받는데, 운동해서 메달을 따면 연금을 받는 게 맞는지에 대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Q2 존경하는 인물이 어떤 분입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인물을 한 명을 꼽기 어렵다. 역사 속에서 작은 역할을 한 사람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로켓 발사를 한다면, 엑스트라 8번까지도 모두 중요한 인물이다. 대한민국을 빛낸 사람은 모두 존경받을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어렸을 때는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존경심을 학습 받으며 자랐다. 그러나 역사 공부를 하면서 사람에게는 다양한 면과 여러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애국하는 행동인 줄만 알았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유가 얽혀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그런 면을 알게 될수록 어떤 한 인물을 꼽아서 존경하는 인물로 삼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느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김연아이다. 고등학생 때 그녀가 올림픽에서 멋진 경기를 펼쳐 금메달을 딴 것을 보고 나 역시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대학 입시, 취업 준비 기간 등 힘든 시기 때마다 그녀의 강인한 정신력을 떠올리며 많은 용기를 얻었다. 그녀가 같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에게 많은 희망을 주었듯이 나 또한 국민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항일 투쟁을 하셨던 분들이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농민, 학생, 부녀자 등 많은 분들이 목숨을 걸고 변변치 않은 무기를 들고 싸웠다. 혼란스러웠던 그 시대에 가장 약했던 존재들이 펜으로, 곡괭이로 누구보다 뜨겁게 투쟁했다는 사실이 존경스럽다.

전문성



AI 2024 트렌드&활용백과

김덕진 / 스마트북스

*** * * 책 소개 * * ***

절대 놓쳐서는 안 될 2024년 AI 트렌드와 활용법. 10여 년 동안 IT 트렌드의 최전선에서 대중들과 함께 호흡해온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이 네이버, 구글, MS, 오픈AI 등 빅테크 기업들의 최신 전략을 분석하고, 2024년 산업 트렌드를 예측한다. 또한 2023년 다양한 강의현장에서 만난 1만 명 사용자들의 요구를 감안하여, 우리 삶과 일에서 활용도가 높은 AI 도구 70여 개를 뽑아 사용법을 설명한다. 일잘러 직장인을 위한 비즈니스용 AI 도구부터 1인 기업가를 위한 맞춤형 AI 도구, '챗봇 네이티브'가 될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AI 도구까지.

『AI 2024_트렌드&활용백과』로 2024년 AI 트렌드를 읽고, 책에 수록된 AI 도구 70여 개에서 내게 맞는 것을 뽑아 맞춤형 워크플로를 만들고 AI 생활을 즐겨보자. 생성형 AI 트렌드부터 비즈니스 활용,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창작까지 한 권으로 끝.

- 출처: 알라딘 인터넷서점(www.aladin.co.kr.)

01
전문성이란?

전문성(專門性)은 특정 분야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과 기술,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전문성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한다.

지식: 특정 분야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최신 정보를 이해하고 있는 능력.
기술: 해당 분야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이나 방법.
경험: 오랜 시간 동안 해당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온 것.
문제 해결 능력: 복잡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전문성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02
우리는 현재 전문성을 잘 지키고 있는가?

공무원으로서 '전문성'이라는 공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업무에 필요한 "지식 학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공무원들은 연수원이나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연수에 정기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최신 법령과 정책에 대해 학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전국의 모든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며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03

전문성은 왜 지키기 어려운가?

전문성은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변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발휘될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한다. 현재 공직사회의 환경은 이러한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우선 한 개인이 맡은 업무의 양이 지나치게 많고 또한 종류가 지나치게 많다. 그런 와중에 업무는 더 늘어나고 있고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수는 점점 적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는커녕, 그 날 업무를 수행하는 것조차 벅차고, 전문성을 갖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업무의 경계 및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인원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교육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개인이 여러 정보를 찾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강사분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임용 이후 발령 받기 전까지의 교육이 매우 부족하다. 물론 내가 임용되었을 때는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점이었기에, 집합 교육이 제한적이었고 이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이 힘들었던 점도 있다. 그렇지만 처음 발령받고 느낀 점은 교육받은 내용이 업무에 적용이 어려워 결국 주위 학교나 전임자에게 의존해야 하는 부분이 많았다는 것이다.

물론 실무수습 제도가 있고 이는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실무수습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이 실무수습 하면서 배운 것과 실제 맡은 업무가 연계되지 않는 경우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실무수습을 받았지만, 실제 발령은 지원청으로 받게 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개인적으로는 발령 이후 교육, 실무수습을 진행하여 실제 업무와 연관성 있게 진행하는 방법 등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04
책을 통해 배울 점은 무엇인가?

AI는 아직 완전한 영역은 아니지만, 잘 쓰면 업무 처리 능력을 보조할 수 있는 도구라는 점이다.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구에 대한 사용방법을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도구라도 사용 방법 자체를 모른다면, 오히려 업무에 방해가 될수도 있다. 또한 그 도구의 사용법 뿐 아니라, 그 도구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어디에 쓰이는지를 확실히 아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꼭 AI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또한 앞으로 쓰게 될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우선 업무에 쓰는 프로그램 자체를 잘 다룰 줄 알아야 한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4세대 나이스로 작업하면서 느낀 점은 생각보다 나이스가 정확히 입력할 것을 입력하면 급여 계산이 정확하다는 점이었다. 다만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디에서 어떤 걸 입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행작업을 미리 숙지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될수도 있고, 더 좋은 업무 보조 프로그램이 나올 수도 있으며, AI가 업무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이를 적절히 사용하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05
헌규가 신규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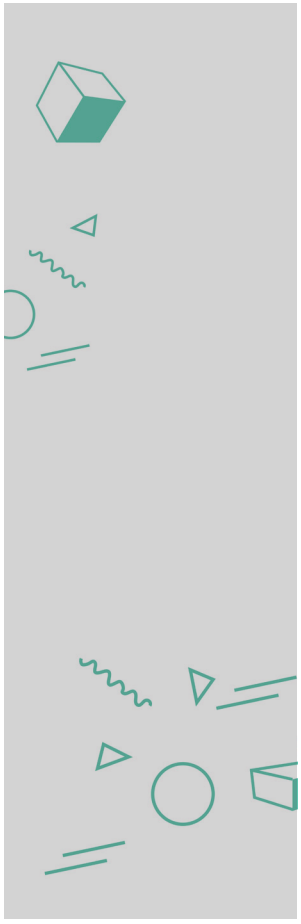
헌규의 한 마디

첫 발령을 받고 생전 처음 마주한 업무에 겁이 나 주말에도 항상 업무 매뉴얼을 공부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지금 막 발령받은 신규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이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업무를 익혔다고 자만했을 때, 저에게 더 많은 최신 지침과 복잡한 민원 상황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전문성은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에 적응하고 최신 정보를 습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새로운 지식을 쌓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공무원의 책임을 다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규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길 바랍니다.



헌규의 두 마디

물론 현재의 환경이 전문성을 갖추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고, 또한 새롭게 공부하고 배워야 할 내용들이 많아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업무를 하면서 과연 제가 전문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을 갖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업무를 하다 보면 매번 돌발상황이 발생하고, 그럴 때 특히 전문성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돌발상황들이 때때로는 전문성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로 제가 맡은 업무에서 돌발 상황이 오게 되면, 그 상황을 기억해두고 다음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전에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를 떠올리며 조금은 수월하게 업무를 수행합니다. 물론 이러한 돌발상황들이 때때로는 개인에게 매우 힘들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업무들이 전문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규 분들이 실제로 업무를 받고 진행하게 되면 대부분은 업무에 대한 경험이 적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며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문성이 갖추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 감상 한 마디

ChatGPT를 이용해서 이 발제문을 썼다. 전문성에 대한 정의와 발제 내용을 설명해달라고 하고, 이어쓰기를 시켰다. 굉장히 훌륭한 문서를 만들어주지만, 저작권에 대한 걱정이 들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 준 문서를 복사 붙여넣기를 해도 괜찮은 것인지 혼란스럽다. 대학교 과제도 이런 식으로 해결해도 괜찮은 걸까?

전문성이라는 분야로 봤을 때, AI도 하나의 툴인데 툴을 쓰는 방법을 아는 것이 전문성이다. 4세대 나이스 도입하면서 느낀 점은 나이스가 생각보다는 똑똑하다는 것이다. 입력이 잘 되면 결과값이 정확하게 나온다. 이런 것이 전문성인 것 같다.

책의 앞부분은 AI 활용에 대한 일반론이라 조금 지루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후반부에 수십 종류의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이를 업무에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생각해보고, 메모하며 읽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절약되는 시간을 또한 전문성을 위한 시간투자를 하며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부분에 AI에 대한 설명이 너무 지루해서 조금밖에 읽지 못했다. 뒤에 실용적인 부분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뒤부터 읽을 걸 그랬다. 오늘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간 내서 다시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을 읽으며 AI가 도입되면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사무직들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관점을 달리하여 AI를 잘 활용한다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빠른 민원 처리와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만들고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고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스페셜 질문 두 마디

Q1 나이스와 에듀파인에 AI기능을 딱 한가지만 넣을 수 있다면, 어떤 기능을 넣고 싶은지 말해 봅시다.

원인행위나 지출을 자동으로 상신해주는 기능을 원한다. 영수증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내용을 분석해서 설정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법령을 찾아주는 기능이 필요하다. 급여 계산을 하면서 계산 자체보다 근거 법령을 찾는 것이 힘든데, 이 부분을 해결해주면 좋겠다.

최근 AI 트렌드에 따라 회사마다 맞춤형 인공지능 모델을 만든다고 한다. 교육행정 맞춤형 모델이라면, 초과근무 지문인식 시스템을 나이스와 연계하거나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공문이 시행되면 맞춤형으로 복무 상신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기능이 필요할 것 같다. 물품 같은 경우도 불용 처리를 하면 관련 법령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해당 법령이 바뀌면 그 부분을 연계해서 적용시키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최근 ChatGPT에 고급 음성모드가 새로 적용이 되었다.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말로 물어보면 바로 알려주는 튜터모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급여 업무에서 기타급여1 작업 시, 나이스와 에듀파인에 동일한 금액을 각각 입력하는 작업을 한다. 이를 나이스에만 입력하면 에듀파인으로 자동으로 연계되는 기능이 필요하다.

오류 발생 시 자동으로 오류가 수정되는 기능이 필요하다. 아니면 이것이 어떤 오류이며,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팝업 등으로 알려주기만 해도 좋을 것 같다. 과목경정의 경우에도 다른 예산을 당겨 쓴 경우, 미리 설정을 해 놓으면 나중에 추가경정예산 이후에 자동으로 경정이 되면 좋겠다.

카드대금 고지서를 스캔해서 입력하거나, 물품을 구입한 사이트의 주소를 입력하면 원인행위 과정에서 끌어올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행정 챗봇이 있다고 한다. 경기도교육청에도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Q2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업무의 변화 속에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봅시다.

이런 책을 많이 읽어야겠고, 관련 연수를 들어서 계속 공부를 해야 한다.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연수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이 더 노력을 들여야 한다. 배울 수 있는 시간도 주어져야 한다.

최근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되므로, 책으로 학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 업무를 하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AI가 더 발전해서, 컴퓨터를 몰라서 못 한다는 분들에게 컴퓨터 사용법을 알려주고 배울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학습동아리를 통해서 신규를 위한 질문에 답변을 자동으로 하는 '헌신 챗봇'을 만들어보고 싶다. 또 업무를 하며 어려웠던 점을 정리해서 공유하는 사례집도 좋을 것 같다. 이런 과정으로 전문성을 향상시켜 업무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쓸데없는 시간낭비를 하지 않아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성을 갖춰야 실무자들도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실무자의 위치에서는 업무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에, 전문성을 갖춰서 더 발전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조직의 리더가 더 선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